0.

Eschatos

지지지직

텔레비전이 켜진다. 이후 소음이 들려온다.

(비웃음, 웃음소리, 비명 소리, 깨지는 소리, 기타 등등)

텔레비전 클로즈 업

(DEVIL TV)

새빨간 텔레비전에서 흥겨운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지옥의 주민 여러분! 하이고! 600년만에 방송이네요! 안방 극장, 에스카토스! 시즌 666이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호성) 영원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축제, 아니 고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발은 열심히 닦으셨나요? 이젠 뜨끈히 지질 때죠! 아, 잠깐만, 이 말을 하려 한게 아닌데?”

“(무언가 스태프가 말을 하자 알아들으며) 음음! 그렇죠, 그래도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니 지옥의 유일무이한 엔터테인먼트를 잊어버리신 친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에스카토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스카토스, 지옥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망과 염원을 영원의 잠에 취하신 하데스님에게 전달하고 그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 전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설레이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와 우리 데빌 티비 스태프의 역할이죠.”

(야유하는 소리)

“네? 틀렸다고요? 전혀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름다운거 그런거 전혀 필요없죠! 우리가 원하는건 뭐?”

(관객: 고통!)

“뭐라고?”

(관객: 살육!)

“마지막으로!”

“(다같이) 죽음!!”

“역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지옥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두근두근하거든요!”

“(다시 스태프가 말을 하자 놀란 눈치로) 예? 벌써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스타, 독사 따위에 물려 죽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흑흑흑!) 어머 너~ 무 로맨틱! 무려 이곳 지옥까지 행차하신~ 그 이름은 바로~~”

아나운서가 텔레비전 속에서 당신을 가리킨다

“(조용하면서 멋있는 목소리로) 오르페우스, 당신이야.”

“하하하하핳ㅎ하ㅏㅏ하하ㅏ하ㅏ하하”

(비웃음, 웃음소리, 비명 소리, 깨지는 소리, 기타 등등)

“(아나운서 톤으로) 에스카토스 시즌 666, 오르페우스 극장은 박하콜라, 에우레얄레 잡화점과 함께합니다.”

(광고)

“태양신 아폴론님과 뮤즈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젊은 악사 오르페우스는 신의 재능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리라 연주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아르고호 대원정에서 세이렌을 리라 연주로 잠재웠을 만큼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 원정에서 무사히 귀환한 그는 아리따운 아내 에우리디케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음모인지, 마침 따분했던 어떤 신의 장난인지! 아내 에우리디케는 독사에 물려 그만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잊을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그녀를 찾으려는 염원을 품고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흑흑) 하지만 이 정도의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 에스카토스에 어울리는 멍청한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점잖은 목소리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르페우스 극장, 그 어리석은 시작을 알리는 대망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송어.”

(튜토리얼 시작)

(곡이 끝나고)

“멋집니다, 그의 사랑을 위한 도전! 몇 번을 죽어도 다시 한 번!”

“그런 당신을 위해 룰렛! 아 룰렛 빠질 수 없죠! 바로 돌립니다! 고고고~”

“아이고 이게 뭐람! 이러면 망했죠! 오르페우스, 좀 더 잘 돌렸어야죠!”